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A][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나)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 아이 세상에 눈땀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  
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때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 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들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B][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커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다)

㉢엄마를 따라 산길을 가다가

무심코 솔잎을 한 움큼 뽑아 길에 뿌렸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호승아 하고 나를 부르더니

내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나는 누가 니 머리카락을 갑자기 뽑으면 안 아프겠나

말은 못 하지만 이 소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노

앞으로는 이런 나무들도 니 몸 아끼듯이 해라

예, 알았심더

나는 난생 처음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눈물이 글썽했다

- 정호승, '꾸중'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그릇'과 '그릇'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용기(容器)로서의 그릇은 기의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기표는 '그릇'이다. 그러나 그릇과 그릇은 다르다. 적어도 시인에게 있어 그릇은 그릇의 상위 개념이다. 그릇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던 언어 이전의 언어이다. 한때 시인은 어머니가 쓰던 모든 말들은 사투리였고, 그것에 상응하는 표준말을 사전에서 찾느라 헤매었던 적이 있다. 어머니의 사투리는 시인에게 부끄러움이었지만 시를 쓰는 지금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사전 속의 언어로 시를 쓰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기표는 낱말들의 음성, 기의는 낱말들의 개별적인 뜻을 나타내며 이 둘은 자의적 관계임.

- ① '그릇'과 '그릇' 모두 용기라는 뜻으로 기의는 다르지 않다.
- ② '그릇'은 나에게 기표이고, '그릇'은 어머니에게 기표이다.
- ③ 표준어로서의 '그릇'의 기의와 사투리로서의 '그릇'의 기의는 다르다.
- ④ 나의 기표인 '그릇' 속에 내포된 기의와 달리 어머니의 기표인 '그릇' 속에 내포된 기의에는 삶 속에서 얻어낸 진솔함이 있다.
- ⑤ 어머니의 기표인 '그릇' 속에 담긴 기의를 이해하고 난 후의 심정이 이 시의 창작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노인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비유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말을 건네는 수법을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4. ㉠과 ㉡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물이다.
  - ② ㉠은 자신을 쉽게 대할 수 없게 하는 근엄함을 지닌 인물이다.
  - ③ ㉠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인물이다.
  - ④ ㉡은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 ⑤ ㉡은 타인의 잘못을 항상 엄격하게 대하는 인물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내 나이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 슬퍼  
 자식이나 성했으면 저나 믿고 살지마는  
 나이는 점점 많아 가니 몸은 점점 늙어 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덴둥이를 딛다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그늘 맺던 은행나무 불개청음대아귀(不改淸蔭待我歸)(1)라

[A][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녀이로다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움을 불러내나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녀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녀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게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임의 녀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녀이라도 반가워라  
 근 오십 년 이곳 있어 날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거나  
 새야 새야 울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내 생각하니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첨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 되어 천만년이나 살아 볼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볼라고  
 첫째 낭군은 추천에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번 못 잘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작자 미상, '덴둥 어미 화전기'

(주) (1) 불개청음대아귀: 변함없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간직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림.

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영탄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다.
  - ④ 대구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으로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덴동 어미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군.
  - ② 변함없이 그늘 맺던 ‘은행나무’는 ‘의구’한 ‘이전 강산’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된 ‘우리 집’의 상황은 고향을 찾은 덴동 어미의 비극적 심정을 심화하는군.
  - ④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인 상황은 덴동 어미의 절망감을 더욱 증폭하는군.
  - ⑤ 덴동 어미는 ‘내 팔자’를 언급하며 자신의 기구함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군.

7. [A]와 (보기)를 비교해 보라는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산 송죽에 홀로 앉아 우는 저 뼈꼭새야 님 죽은 혼령이어든 네 아니 불쌍탄 말이가 차마 가지로 님의 생각 간절하여 나 못 살갓구나

(종략)

천리원정(千里遠程)에 님 이별하고 곡귀강남(哭歸江南)(1)으로 나 돌아간다 차마 진정코 나 못 살갓네

우수 경칩에 대동강 폴리더니 정든 님 말씀에 요내속 폴리누나 차마 진정 님의 생각 그리워 나 못 살갓구나

강촌일일(2)에 환수생(還樹生)(3)하니 강풀만 푸르러도 님 생각이라 차마 진정 님 생각 간절하여 나 못 살갓구나

-서도 잡가 ‘수심가’

(주) (1) 곡귀강남: 울며 강남으로 돌아감.  
 (2) 강촌일일: 강촌의 하루하루.  
 (3) 환수생: 나무가 다시 살아남.

ㄱ. 정서의 측면  
 - [A]와 달리 (보기)에는 자책을 바탕으로 한 회한이 드러남. ,, ①  
 - (보기)와 달리 [A]에는 죽어 찾아온 것 같은 임에 대한 반가움이 드러남. ,, ②

ㄴ. 표현의 측면  
 - [A]와 (보기) 모두 어구의 반복이 드러남. ,, ③

ㄷ. 소재의 측면  
 - [A]의 ‘두견새’와 (보기)의 ‘뼈꼭새’는 임을 떠올리게 함. ,, ④

ㄹ. 어조의 측면  
 - [A]와 (보기) 모두, 독백체의 어조와 다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함. ,,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東)에 팔봉산(八峰山).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 놓였을꼬? 어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農家)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십여 호씩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댁싸리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해는 백 도(百度) 가까운 별을 지붕에도, 벌판에도, 뽕나무에도 암탉 꼬랑지에도 내려쬐인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워서 견딜수가 없는 염서(炎暑)가 계속이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記事)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된다. 그럼 나는 최서방네집 사랑 뒷마루로 장기나 두러 갈까? 그것 좋다. 최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서방네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보다. 최서방네 조카가 낮잠을 잔다.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열 시 지난 후니까,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서방의 조카를 깨워 가지고 장기를 한판 벌이기로 한다. 최서방의 조카와 열 번 두면 열 번 내가 이긴다.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 둔다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는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돌밤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어늘 이기는 것이 어찌 권태 아닐 수 있으랴? 열 번 두어서 열 번 내리 이기는 장난이란 열 번 지는 이상으로 싱거운 장난이다. 나는 참 싱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한번쯤 저 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하는 체하다가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 조각을 갖다 놓는다. 서방의 조카는 하품을 썩 하더니, 이윽고 둔다는 것이 탄전이다. 의례히 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수를 보고 어찌고 하기도 싫다는 사상이리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장기를 갖다 놓고, 그저 얼른얼른 끝을 내어 저 줄 만큼 저 주면 ㉤이 상승 장군(常勝將軍)은 이 압도적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제 출물에 가버리겠지 하는 사상이리라. 가고나면 낮잠이나 잘 작정이리라.

나는 부득이 또 이긴다. 인제 그만 두잔다. 물론, 그만

두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저준다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나는 왜 저 최서방의 조카처럼 아주 영영 방심 상태가 되어 버릴 수가 없나? 이 질식할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사세(些細)한 승부에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내게 남아 있는 이 치사스러운 인간 이욕(人間利慾)이 다시 없이 밍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해 버려야 한다.

- 이상, <권태>

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한 교훈성이 두드러진다.
- ②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주변 환경에 대한 진술을 통해 서술자의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내면적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서술자의 내면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다음 중, 위 글의 글쓰기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죽-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 ②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村童)이 범에게 물려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神罰)에 지나지 않는다.
- ③ 돌맹이로 풀을 짓짙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 가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돌맹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이렇게 돌아본다.
- ④ 나는 거기 앉아서 이번에는 그 썩는 중의 웅덩이 속을 들여다본다. 순간 나는 진기한 현상을 목도한다. 무수한 오점이 방향을 정돈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물임에 틀림없다. 송사리 때임에 틀림없다.
- 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5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反芻)를 계속하였다.

10. 다음 화자의 태도 중, 위 글에 드러난 서술자의 심리 및 태도와 유사한 것은?

①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 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 서정>

②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유치환, <생명의 서>

③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寞)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은, <눈길>

④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 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김현승, <가을의 기도>

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윤동주, <자화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장 : 이걸 보게. / 금녀 : (보고는) 이게 언제 신문에  
에유?  
구장 : 모르지 언제 건지. 읍에서 고무신 싸 가지구  
온 건데. 뒤지할려구 뒷간에 가지고 갔다가 우연히 이  
걸 봤어. (하면서 날짜를 신문지에서 찾는다.) ㉠ ……  
올아.  
명서 처 : 어찌된 일이에유?

구장 : 재작년 설달부터 소식이 없었다지? 이 신문이  
바로…….

명서 : 무슨 사연이유? 이 신문에 쓰인 건?  
구장 : 그게 또 이상하단 말야.

명서 처 : 얼른 좀 들려 주세요, 구장 영감.  
구장 : 쉽게 말허면 이 내용이란 건 오사카[大阪]서  
노가다 패에 일하는 최명수란 자가…….

명서 처 : 노가다 패라니요?  
구장 : 그걸 몰라? 산에서 굴 파 먹고 남포질\*해서 돌  
떼는 놈들 말야. / 명서 : 그래서?

[A][구장 : 그래, 그 철없는 명수란 자가 노가다 패에  
서 몇몇 동무놈들하구 남몰래 해방 운동인가 뭘 했다  
가…….

명서 처 : 해방이라니 그 무슨 말이유?  
명서 : 오오, 남의 일하는 데 훼방을 놓았단 말이겠지.  
그렇쥬? 구장 영감?

구장 : 훼방이 아니라 해방이야. 해애 비앙 우운 도옹,  
명서두 모르는구먼.

명서 : 모르겠는데유.]

<중략>  
남자의 소리 : 이 집에 최명수란 사람 있소?  
명서 처 : 일본서 왔수? / 남자의 소리 : 그렇소.

명서 처 : 일본서?  
그때에 사립문을 박차는 듯이 한 남자 안으로 들어선  
다. 그는 우편배달부다. 소포를 들었다.

우편배달부 : (들어서며) 왜 밖에 문패도 없소? / 모  
녀 : (말이 없다.)

우편배달부 : 빨리 도장을 내요. / 명서 : 도장?  
명서 처 : (금녀에게 의아한 듯이) 너의 오빠가 아니  
지?

금녀 : 배달부예요. / 명서 : (실망한 듯이) 찻!  
우편배달부 : 얼른 소포 받아 가요! 원, 무식해도 분수  
가 있지. 빨리 도장을 내요.

명서 : (반항적 어조로) 내겐 도장 같은 건 없소.  
우편배달부 : 그럼, 지장이라도…….

명서 :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는다. 배달부 퇴장)  
명서 처 : 음, 그 애에게서 물건이 온 게로구먼.

명서 : 뭘까?  
명서 처 :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게지! 오늘 아침  
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올려구 그랬던가  
봐. 당신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 ㉡ …….

명서 : (소포의 발송인의 이름을 보고) 하아 하! 이견  
네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가…….

명서 처 : 아니, 삼조가 뭇을 보냈을까? 입때 한마디  
소식두 없던 애가 ㉢ …… (소포를 끌러서 꺾을 떼어  
보고)

금녀 : (깜짝 놀라) 어머니!

명서 처 : (자기의 눈을 의심하듯이) 대체 이게 ㉔  
 …… 이게? 예구머니, 맙소사! 이게 웬일이냐?  
 명서 : (되려 멍청해지며, 꺾꽂이에 쓰인 글자를 읽으며)  
 최명수의 백골.  
 금녀 : 오빠의?  
 명서 처 : 그럼, 신문에 난 게 역시! 아아, 이 일이 웬  
 일이냐?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백  
 골 상자를 꼭 안는다.)  
 금녀 : 오빠!  
 명서 : 나는 여태 개돼지같이 살아 오면서, 한마디 불  
 평두 입 밖에 내지 않구 꾸벅꾸벅 일만 해 준 사람이  
 여.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맨  
 들어 보내느냐? 응, 이 육살할 놈들! (일어서려고 애쓰  
 다.)  
 금녀 : (눈물을 씻으며) 아버지! (하고 붙든다.)  
 명서 : 놓아라! 명수는 어디루 갔니? 다 기울어진 이  
 집을 뉘게 맡겨 두구 이놈은 어딜?  
 금녀 : 아버지! 아버지!  
 명서 : (꺾꽂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이놈들아, 왜 백다구  
 만 내게 갖다 말기느냐? 내 자식을 죽인 놈이 이걸 마  
 저 처치해라! (쇠진하여 쓰러진다. 꺾꽂이에서 백골이 쏟아  
 아진다. 발은기침! 한동안)  
 명서 처 : (흠어진 백골을 주우며)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찾아왔다.  
 인제는 나는 너를 기다려서 애태울 것두 없구 동지선달  
 지나긴 밤을 울어 새우지 않아두 좋다! 명수야, 이제 너  
 는 내 품 안에 돌아왔다.  
 명서 : ㉕ ……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져가래라!  
 금녀 : 아버지, 설워 마세유. 서러워 마시구 이대루 꼭  
 참구 살아가세유.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릴 저버리  
 진 않을 거예유. 죽은 혼이라두 살아 있어, 우릴 꼭 돌  
 봐 줄 거예유. 그때까지 우린 꼭 참구 살아가유. 예, 아  
 버지!  
 명서 : ……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지고 가래라!  
 금녀의 어머니는 백골을 안치하여 놓고, 열심히 무어  
 라고 중얼거리며 합장한다. 바람 소리 적막을 찢는다.  
 - 유치진, '토막'  
 \* 남포질 : 남포(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바위 따위의  
 단단한 물질을 깨뜨리는 일.

11. 위 글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명수의 검거 소식이 실린 신문을 두고 구장과 명서네 가족이 대화하는 상황  
 →  
 (나) 배달된 명수의 백골을 두고 명서네 가족이 대화하는 상황

- ① (가)에서 전개된 사건에 대해 (나)에서 그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 ② (가)에서 전개된 인물 간 갈등이 (나)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에서의 개인적 경험이 (나)에서 사회적 경험으로 발전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현재의 사건이, (나)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 ⑤ (가)에서 사건이 언급되고, (나)에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2. <보기>의 관점에서 [A]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명서 부부는 늙고 병약한 데다가 '해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무지함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서 오는 명서 부부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 ① 무지한 인물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관객들은 당대의 계층적 갈등이 보여 주는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겠군.
- ② 무지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인물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관객들의 연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겠군.
- ③ 무지함이 보여 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관객들은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잠재된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인물의 무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관객들이 당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군.
- ⑤ 인물의 무지를 노출시킴으로써 관객들은 사회 현실에 어두웠던 인물이 의식적 자각을 이루는 과정을 예견할 수 있겠군.

13. <보기>를 참고하여,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희곡에서 사용되는 말줄임표는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거나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희곡을 감상할 때 말줄임표의 쓰임에 주목하여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를 추리해보면 감상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 ① ㉠에는 구장이 신문을 뒤적거리는 동안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명서가 예감한 일이 결국 벌어졌음을 알고 실망하는 명서 처의 심리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소식이 없었던 삼조가 소포를 보낸 것을 의아해하는 명서 처의 심리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소포에 백골이 들어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해하는 명서 처의 심리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아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명서의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자 장삿길로 나서 강호를 돌아다녔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옛 고향 전당에서 노닐던 중, 어릴 적 함께 놀았던 소꿉동무이자 지금은 기생이 된 비도(緋桃)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 주생은 비도가 노 승상(盧丞相) 댁에 다니러 가는 길을 몰래 따라갔다가 거기서 노 승상의 딸 선화를 보고 그녀를 마음에 두게 된다.

하루는 부인이 어린 아들 국영(國英)을 불러 말했다.  
 “네 나이 벌써 열둘인데 아직도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 후일 어른이 되면 어떻게 자립하겠느냐? 내 들으니 비도의 남편인 주생이 글을 잘 하는 선비라고 하니, 네가 가서 배움을 청함이 좋겠구나.”

부인의 집안 다스리는 법도가 매우 엄했기에 국영은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었다.

그날로 책을 끼고 주생에게 가니, 주생은 속으로는 ‘내 뜻대로 일이 되는구나.’ 하고 남몰래 기뻐하면서도 두세 번 겸손한 태도로 사양한 후에야 가르쳤다.

어느 날 주생은 비도가 없는 틈을 타 국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가 오가면서 글을 배우니, 이것은 매우 힘들고 수고스런 일이다. ㉠ 네 집에 만약 빈방이 있다면, 내가 너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겠다. 그러면 너는 왕래하는 수고로움을 덜 것이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을 텐데.”

국영이 사례하여 말했다.  
 “진실로 원하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말씀 드려, 그날로 주생을 맞이했다.  
 비도가 밖에서 돌아와서는 몹시 놀라 말했다.  
 “아마도 선랑(仙郎)께서는 딴 맘이 있나 보군요. 왜 저를 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요?”

주생이 말했다.  
 “듣자하니, 승상 댁에는 삼만 축(軸)의 장서가 있다 하오. 그러나 부인이 선공(先公)의 유품이라 함부로 내고 들이는 것을 싫어한다기에, ㉡ 내가 그 집애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책들을 읽어 보려는 것뿐이요.”

비도가 말했다.  
 ㉢ “낭군께서 학업을 부지런히 닦으시는 것은 저의 복이지요.”

주생은 거처를 승상 댁으로 옮겨 갔지만, 낮이면 국영과 같이 있고 밤이면 모든 문을 꼭꼭 잠가 버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궁핍거리며 열흘을 지냈다.

문득 그는 혼잣말로 ‘처음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꺾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꽃피는 봄이 다가도록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황하(黃河)의 물 맑기를 기다리려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어야 하지? ㉣ 차라리 어둔 밤에 느닷없이 뛰어들어가 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요, 행여 이루어지지 못하면 살아 죽임을 당하지 뭐.’라고 중얼거렸다.

이날 밤에 달이 없었다.  
 주생은 여러 겹의 담을 뛰어넘어 선화의 방 앞에 다다랐다. 행랑채는 구부러진 난간에 주렴(珠簾)과 장막(帳幕)이 겹겹이 드리워 있었다. 주생이 한참을 살펴보았으나 인적이 없었고 다만 선화 혼자만이 촛불을 밝히고 곡을 뜯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생은 난간 사이에 엮드려 선화가 하는 양을 보았다.

[A][선화는 곡 타기를 마치자 작은 소리로 소자첨(蘇子瞻)의 ‘하신랑(賀新郎)’이라는 사(詞)를 읊기 시작했다.

주렴 밖에 그 누가와 비단 창 두드리나요  
 요대에 노니는 꿈 부질없이 깨우는구나  
 가야금 곡조는 바로 바람 되어 대를 흔드네.

바로 주생이 주렴 밖에서 작은 소리로 읊었다.

바람 되어 대를 흔든다 마오  
그리운 임 온 것이 참이잖소.]

선화는 거짓으로 못 들은 체하고, 곧 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주생이 들어가 함께 잠자리에 드니, (중략) 주생은 벌이 꿀을 찾듯 나비가 꽃가루를 그리워하듯, 매혹되어 정신이 혼미하여서 새벽이 가까워진 것도 깨닫지 못했다.

갑자기 난간 밖 꽃나무 가지에 앉은 꾀꼬리의 아양 떠는 듯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 왔다. 주생은 깜짝 놀라 일어나 방을 나오니 연못과 집은 고요했고 희번한 새벽안개가 자욱하여 사물이 분명치 않았다.

선화는 주생을 보내느라고 방문을 나서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며 썰쩍하니 말했다.

“이곳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 일이 한 번 누설된다면 죽고 사는 것이 걱정됩니다.”

주생은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 급히 달려들며 말했다.

“겨우 좋은 인연을 한 번 이루었는데, 어찌 이렇게도 박대를 하는 거요?”

선화가 웃음 치며 말했다.

㉠ “아까 말은 농일 뿐이에요. 낭군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녁에 만나도록 하지요.”

주생은 ‘응응.’ 하면서 달려 나갔다.

-권필, ‘주생전’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은 ‘주생’의 학식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다.
- ② ‘비도’는 ‘주생’이 ‘선화’를 사모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 ③ ‘주생’은 승상 댁의 엄한 분위기 때문에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④ ‘선화’는 ‘주생’이 거처를 옮겼을 때부터 그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었다.
- ⑤ ‘주생’은 ‘선화’와 정을 나눈 후, ‘선화’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바라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화가 주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詞)에 담아 표현하자, 주생이 기뻐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선화가 사(詞)로써 주생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려 하였으나, 주생이 선화의 생각을 돌리려 하고 있다.
- ③ 선화가 읊는 사(詞)에 매료된 주생이 자신도 모르게 화답시를 읊는 바람에 선화가 깜짝 놀라고 있다.

④ 방 바깥에 누군가가 있음을 눈치챈 선화가 사(詞)로써 반응을 유도하자, 주생이 이에 화답하고 있다.

⑤ 주생이 돌아갈까 봐 걱정하는 선화가 사(詞)로써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주생이 선화를 안심시키고 있다.

16.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주생전’은 ‘주생’이라는 한 명의 남성과 ‘비도’와 ‘선화’라는 두 명의 여성 간의 삼각관계를 다룬 애정 소설이다. 과거 사대부였던 비도는 주생과의 사랑과 주생의 성공을 통해 신분을 회복하고자 하나 주생의 애정은 비도에서 선화에게로 옮겨 간다. 선화는 처음에 주생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녀 역시도 주생에 대한 애정을 키워 간다. 작가는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세 인물의 삼각관계를 설정하여 인물들의 욕망이 서로 비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① ㉠에는 국영을 가르친다는 것을 빌미로 선화에게 접근하려는 주생의 욕망이 담겨 있다.
- ② ㉡에는 비도가 아닌 선화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자 하는 주생의 의도가 깔려 있다.
- ③ ㉢에는 주생의 학업이 자신의 욕망과 부합한다고 여기는 비도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위험마저 감수하면서까지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주생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에는 주생의 욕망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선화의 적극성이 드러나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답> ④

(가)는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사투리 사용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삶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 사용에 대한 생각을 하며, 서정시인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고 있다. (나)는 자기 인생의 사표로서의 '머슴 대길이'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성찰의 자세를 일깨우는 불빛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머슴 대길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가 될 것이다. (다)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꾸중에서 느낀 자연애호의 정신에 스스로를 반성한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은 대상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가)~(다) 모두 구체적으로 잃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나)의 경우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였지요'라는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가)와 (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② (가)~(다) 모두 대상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표현은 없다. ③ (가)는 어머니, (나)는 대길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 2) <답> ③

표준어로서의 '그릇'과 사투리로서의 '그릇'은 기표로서는 다르지만 기의로는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다른 말임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그릇'은 '그릇'의 사투리일 뿐 그 의미 자체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기의는 같다. ② '나'는 '그릇'이라 말하고, 어머니는 '그릇'이라 말하므로 각각 기표이다. ④ 어머니가 말하는 '그릇'은 단순히 용기라는 뜻만으로는 같은 기의지만,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그릇'과 달리 어머니의 삶 속에서 얻은 진술함이 포함되어 있다. ⑤ 어머니의 진술함이 담긴 '그릇'이라는 말의 기의를 이해하고 이러한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이다. 따라서, 이 시의 창작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 3) <답> ⑤

[A]에서는 삶에서 의미를 획득한 어머니의 언어와 사전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자신의 언어의 대조를 통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B]는 대조도 드러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드러나 있지 않다. [B]는 대상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경외감을 담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① [A]에는 적합한 진술이지만 [B]는 타인의 삶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② [A], [B] 모두 노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언급은 없다. ③ [A]보다는 오히려 [B]가 더 비유적 의미가 잘 살아나 있다. ④ [A]의 표현에 말을 건네는 수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표현은 있지만 말을 건네는 것은 아니다.

### 4) <답> ⑤

⑥는 화자의 잘못에 화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가르치는 엄격함을 보이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난생 처음 엄마한테 꾸중을' 들은 것으로 보아 항상 타인의 잘못을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1연의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와 같은 표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2연의 내용에서 비록 신분이 머슴이지만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근엄함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근엄함은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에서 표현된 것처럼 가볍고 즉물적인 것에 대해 초연한 근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있다. ③ 1연의 후반부 내용에서 지식을 전하는 내용을 알 수 있고, 3연의 내용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노'라며 꾸중을 하는 대목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5) <답> ⑤

#### ⑤ 확인: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의 특징은 앞뒤가 모순되게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 앞뒤가 모순되도록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① 확인: 열거의 기법

'첫째 낭군은 추천에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에서 열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확인: 영탄의 어조

'~ 애고 탐탐 반가워라', '~ 녀이라도 반가워라', '~ 썩대밭이 되었구나' 등에서 영탄의 어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확인: 의문형 어미

'울었던가', '어이할거나' 등에서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 ④ 확인: 대구의 기법

'서방님의 녀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 임의 녀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게'에서 대구의 기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6) <답> ①

① 확인: 다른 사람의 처지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

덴동 어미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덴동 어미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확인: '의구'한 '이전 강산'으로서의 '은행나무'

'그늘 맺던 은행나무 불개침음대아귀라'를 볼 때, 변함없는 '은행나무'는 변해 버린 고향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으로서 '의구'한 '이전 강산'의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된

고향을 찾은 덴동 어미는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된 집의 상황을 접하고 더욱 슬퍼한다.

④ 확인: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인

변해 버린 고향에 대한 덴동 어미의 절망감은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인 현실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⑤ 확인: '내 팔자'

덴동 어미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팔자를 언급하며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답> ①

① 확인: 자책을 바탕으로 한 회한

'자책'은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을 의미하고, '회한'은 '뉘우치고 한탄함.'을 의미한다. (보기)에 자책에 따른 회한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확인: 임에 대한 반가움

[A]의 '임의 녀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녀이라도 반가워라'에서 죽어 찾아온 것 같은 임에 대한 반가움이 드러나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뼈꼭새'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찾을 수 없다.

③ 확인: 어구의 반복

[A]에는 '불여귀 불여귀', '새야 새야'와 같은 어구의 반복이 나타나고, (보기)에는 '나 못 살았구나'라는 어구의 반복이 나타난다.

④ 확인: 입을 떠올리게 함

[A]의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등등 떠서 /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녀이로다'에서 '두견새'가 입을 떠올리게 함을 알 수 있고, (보기)의 '저 뼈꼭새야 님 죽은 혼령이거든 네 아니 불쌍탄 말이가

차마 가지로 님의 생각 간절하여 나 못 살았구나'에서 '뼈꼭새'가 입을 떠올리게 함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독백체, 다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

[A]에서는 두견새를, (보기)에서는 뼈꼭새를 부르면서 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A]에서는 '이내 한번 못 잘 살고 내 신명이 그만 일세', (보기)에서는 '천리원정에 님 이별하고 곡귀강남으로 나 돌아간다 차마 진정코 나 못 살았네'라는 말에서 독백체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가) 이용휴, '수리기'

작품 해설: 자연의 이치와 성인(聖人)의 예를 들며 이치에 따르는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고전 수필이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주제] 이치를 따르는 삶의 필요성

(나)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기'

작품 해설: 순흥 지방의 화전 놀이를 읊은 장편 서민 가사이다. 순흥의 한 마을 부인네들이 비봉산에 모여 화전을 즐기다가 어떤 청춘과부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개가할 뜻을 비치자, 덴동어미가 자기의 기구한 팔자를 자세히 일러 주면서 개가하지 말고 주어진 운명대로 살라고 설득한다. 청춘과부는 덴동어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꽃타령을 부르며 즐겁게 논다. 이와 함께 다른 부인네들도 기쁜 마음으로 화전놀이를 끝내게 된다. 제시된 부분은 덴동어미가 청춘과부를 위로하고 삶의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말하는 부분이다.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제] 덴동어미의 기구한 인생 역정

(다)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 해설: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서원을 건립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 귀의 생활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講學)과 사색에 침잠하는 학문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였다. 총 12수로 되어 있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 6수는 자연의 감흥을 내용으로 하는 '언지(言志)', 후반부 6수는 학문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 '언학(言學)'에 해당한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과 학문의 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8) <답> ③

서술자가 접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은 매우 평범하다. 동쪽에는 팔봉산이 있고, 서·남·북쪽에는 벌판이 있는 마을에는 울타리와 호박 넝쿨로 둘러싸여 있고 개를 기르는 농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채 정도씩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러한 ‘평범한 마을’을 ‘지루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마을의 경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9) <답> ④

글쓰는 모든 것이 일상적인 관습으로 둘러싸인 세계 안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물과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를 묻게 되지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의 연속뿐이다. 글쓰는 이러한 반복되는 대상에 대해 권태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선지 가운데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반복적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④의 경우, 개울에 썩은 물과 늘어진 대싸리만 있었다면 글쓰에게 권태감을 불러일으켰겠으나, 글쓰는 송사리라는 생물을 발견함으로써 경이로운 마음을 갖는다. 따라서 권태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아니다.

10) <답> ①

이 글의 서술자는 아침을 먹고 나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일상에 직면하여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린다. 그리고는 최 서방의 조카를 찾아가 장기를 두지만, 그와의 장기도 일상의 권태로움을 극복할 만한 방안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 ①~⑤의 화자 중에서, 이 글의 서술자와 동일한 심리 및 태도를 보이는 것은 ①의 화자이다. 화자는 ‘호올로 황량한 생각’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허공에 돌팔매질을 해 보지만, 그가 던진 돌은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갈 뿐이다. 즉, 화자는 결과적으로 절망감에 도달했을 뿐이다.

11) <답> ⑤

<보기>는 명수의 검거를 알리는 신문을 두고 구장과 명서네 가족이 대화하는 장면, 배달된 명수의 백골을 두고 명서네 가족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명수가 해방 운동을 한 사건이, (나)에서는 명수가 백골로 돌아오게 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12) <답> ②

<보기>는 무지함이 인물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를 이해한 것으로는 무지의 상황이 인물이 처하게 될 불우한 처지에 대한 관객들의 연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A]가 계층적 갈등을 보여 주는 상황은 아니다.

③ [A] 이후에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물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의 무지가 당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무지와 비극성의 연관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보기>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감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명서’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고 있을 뿐, [A]가 전환점이 되어 사회 현실에 대한 의식적 각성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리고 ⑤는 <보기>에서 언급된 ‘비극성을 부각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감상도 아니다.

13) <답> ②

<보기>는 희곡에서 말줄임표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②의 ⑥는 명수에 관해 불길한 예감을 했던 명서를 면박하는 명서 처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명서가 예감한 일이 결국 벌어졌음을 알고 실망하는 명서 처의 심리와는 관련이 없다.

① ③은 구장이 신문의 날짜를 확인하려고 신문을 뒤적거리는 시간의 경과 상황을 나타낸다.

③ ④는 일본에 간 뒤로 소식이 없던 삼조가 소포를 보내오자 매우 의아해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④ ⑤는 소포가 명수의 백골임을 확인하고는 매우 당황해하는 명서 처의 심리가 담겨 있다.

⑤ ⑥는 명수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명서의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다.

14) <답> ④

④ 확인: ‘선화’는 ‘주생’이 ~ 그에게 호감  
선화가 언제부터 주생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는지는 이 글 속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주생’의 학식

부인이 국영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내 들으니 비도의 남편인 주생이 글을 잘 하는 선비라고 하니, 네가 가서 배움을 청함이 좋겠구나.’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비도’는 눈치채지 못하고

주생이 노 승상 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을 때, 비도가 ‘아마도 선랑께서는 딴 맘이 있나 보군요. 왜 저를 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요?’라고 의심하는 대목이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비도가 선화를 사모하는 주생의 마음을 눈치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그런 눈치를 챈다면, 주생이 학업을 핑계로 댁을 떠났을 때에도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비도는 주생의 말을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③ 확인: 엄한 분위기

‘부인의 집안 다스리는 법도가 매우 엄했기에’나 ‘주생은 거처를 승상 댁으로 옮겨 갔지만, 낮이면 국영과 같이 있고 밤이면 모든 문을 꼭꼭 잠가 버리므로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⑤ 확인: 지속적인 만남

선화가 주생을 보내는 대목에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자, 주생은 ‘겨우 좋은 인연을 한 번 이루었는데, 어찌 이렇게도 박대를 하는 거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후 선화가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말하자 기뻐하는 주생의 모습을 보면, 주생이 선화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답> ④

④ 확인: 누군가가 있음을 눈치챈 선화

(㉠)에 나타난 선화의 사(詞)에 보면, ‘주렴 밖에 그 누가와 비단 창 두드리나요’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원곡인 ‘하신랑(賀新郎)’의 가사이기는 하나, 현재 주생이 선화의 방 앞에 숨어 있는 상황과, (㉠)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선화는 거짓으로 못 들은 체하고’를 종합해 보면, 선화는 누군가가 숨어 있음을 알고서 일부러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확인: 주생을 사모하는 마음

누군가 바깥에 있다는 것을 선화가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주생인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선화가 읊은 사(詞)에는 사모의 정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고, ‘요대에 노니는 꿈’에서 사모의 정이 다소 드러난다고 보더라도 주생의 입장에서 그것이 자신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② 확인: 주생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려 하였으나

선화가 읊은 사(詞)의 내용은 오히려 주생을 넌지시 유혹하는 것으로 보이지, 주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가도록 의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확인: 선화가 깜짝 놀라고 있다.

선화는 누군가가 바깥에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이유가 없다.

⑤ 확인: 주생이 돌아갈까 봐 걱정

선화가 읊은 사(詞)의 내용은 자신의 쓸쓸함을 토로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주생이 돌아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확인하기 어렵다.

16) <답> ⑤

⑤ 확인: 주생의 욕망 무시,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선화

㉠은 앞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자신의 말에, 그럴 수 없다고 달려들었던 주생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화이다. 즉 ㉠은 주생의 욕망과 일치하는 선화의 욕망을

드러내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① 확인: 선화에게 접근하려는 주생의 욕망

㉠은 주생이 국영에게 자신의 거처를 국영의 집으로 옮기겠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주생은 국영이 오가면서 글을 배우는 일이 힘들고 수고스럽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 주생이 ‘내 뜻대로 일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이후 선화에게 접근하려 애쓰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선화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과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확인: 선화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자 하는 주생

㉡에서 주생이 노 승상 댁으로 거처를 옮기려는 이유가 서책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고, 실제 의도는 선화에게 접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자신과 사랑을 나눴던 비도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도에게 솔직히 밝힐 수 없는 것이었고, 핑계를 대어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③ 확인: 주생의 학업이 자신의 욕망과 부합한다고 여기는 비도

㉢에서 비도는 낭군이 학업을 닦는 것이 자신에게도 복이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아녀자가 남편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관습적 표현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앞서 주생이 거처를 옮기게 되었을 때 비도가 의심과 원망의 말을 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은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은 주생이 학업을 닦아 출세하는 것이 기생인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도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 반영된 말로 볼 수 있다.

④ 확인: 위험마저 감수,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주생

㉣에서 주생은 밤에 선화의 방에 뛰어들어갔을 때 선화가 거부할 경우 삶아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선화와 정을 나누고자 하는 주생의 의지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